

나쁜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음악들 ❁

열여섯 살 난 폴은 헤비메탈 음악에 심취하면서부터 온갖 종류의 마약을 복용하게 되었고 사탄을 상징하는 별무늬가 그려진 옷을 입거나 성경을 불태워 버렸다. 결국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의사와의 상담 가운데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사탄, 마약 그리고 헤비메탈이 내 삶의 전부였습니다."

왜 폴이 이렇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음악을 잘못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음악을 선택하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데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음악을 좋아하는 십대들과 이야기해보면 자신들이 좋아하는 음악에 대해 좋다 나쁘다를 구분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종종 느낄 수 있다. 어떤 종류의 음악이든지 자신들의 세계 안에서는 모두 허용될 수 있다는, 참으로 넓은 것 같으면서도 이기적이고 위험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음악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음악들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나쁜 삶의 열매를 맺도록 만드는 좋지 않은 음악들이 있다. 나쁜 삶의 열매는 모든 나무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못된 나무에서 열린다(마 7:17). 사람을 나무에 비유한다면 사람이 어떤 영양분을 흡수하느냐에 따라서 그 질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영양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음악인 것이다. 어떤 음악을 듣느냐에 따라서 삶의 열매의 질이 결정되는 것이다.

좋지 않은 음악들, 나쁜 삶의 열매를 맺도록 만드는 음악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리스천으로서 가져야 할 기준은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다. 영적인 분별력은 세상의 그 어떤 기준보다 우선한다. 그러므로 십대 그리스천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적인 분별력을 요청해야만 한다.

지금 믿음의 선배들에 의해 영적으로 분별된 좋지않은 음악들이 많이 있다. 헤비메탈, 프로그레시브 록이나 애시드 록(환각 록), 펑크 록과 같은 록 음악들, 뉴에이지 음악과 같은 음악들이 바로 그런 종류의 음악들이다.

록 음악은 반기독교적인 사건들을 수없이 일으켰다. 1976년에 있었던 더후(The Who)의 공연(11명의 젊은이가 죽음)이나 뉴 키즈 온더 블럭의 한국공연 등과 같았던 대형 사건들을 비롯해 자살, 폭력, 음란, 마약, 신비주의나 사탄주의에 빠지게 하는 등의 여러 사건들이 록 음악이 발생한 1950년대 중반부터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탄은 록 음악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록 음악을 뿌리로 두고 있는 헤비메탈도 마찬가지다. 증오를 본질로 한 이 음악은 지금도 반기독교적인 대열에 앞장을 서고 있다. 멤피스에 있는 테네시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인 폴

킹은 "헤비메탈 음악은 마약남용, 잘못된 성행위 및 폭력과 사탄주의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진다"고 하면서 이 음악이 얼마나 반사회적인 음악인지를 강조한다.

뉴에이지 음악은 1960년대 중반에 폴흔, 스티븐 핑커(국내에 '살빼는 음악'이라는 CD가 나와 있음), 토니스콧과 같은 음악가들이 명상을 위한 실험음악으로 만들기 시작한 이후 뉴에이지 음악 외에 록이나 메탈, 컨츄리 등과 같은 음악에 뉴에이지 사상으로 만들어진 노래들이 있는데 이러한 뉴에이지 송들도 역시 반기독교적인 음악들이다. 뉴에이지 송으로 국내에 잘 알려진 음악은 조지 해리슨의 My Sweet Lord, 스티브 바이의 솔로 앨범들,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 산타나, 존 덴버, 어스 앤 파이어, 그리고 존 레논의 음악들이다.

교회음악 가운데도 조심해야 할 음악들이 있는데 CCM이 나타나면서부터 이러한 음악들이 더욱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상업적으로 만든 노래, 성경적이지 못한 노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나 사명감을 갖지 못한 채 만들어진 헌신되지 아니한 노래, 무조건 세상의 음악을 모방하려고 만들어진 노래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음악들에 대한 구별이 필요한 이유는 이런 음악들을 선택하고 들음으로서 나타나는 결과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꾸어 놓기 때문이다. 성령의 아홉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음악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세상에 파묻히도록 만드는 음악들, 이런 음악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마치 시한폭탄을 가슴에 안고 사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곽용화 목사/ 인천한국중앙침례교회 음악목사
반뉴에이지 기독교인(CANA)클럽 연구회원

☘ 청소년과 함께하는 QT나라 , 「 새벽나라 」 제공
<http://isena.com/>